

1997년 6월 2일 월요일

□ 6·10항쟁 세대가 바라본 학생운동

시대흐름 잡아야 할 학생운동

이 성 환

〈국민회의 임옥진의원 비서관〉

1987년 6월 10일 아침, 나는 명동성당에 있었다.

특별히 전두환 정권에 대한 분노가 컸다거나, 학생운동에 열성적인 편도 아니었던 내가 명동성당에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우연한 일이었다. 단지 경찰을 피해 우리가 찾은 곳이 명동성당이었는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6.10항쟁의 핫볼이 되어 버렸다. 경찰이, 아니 전두환 정권이 우리를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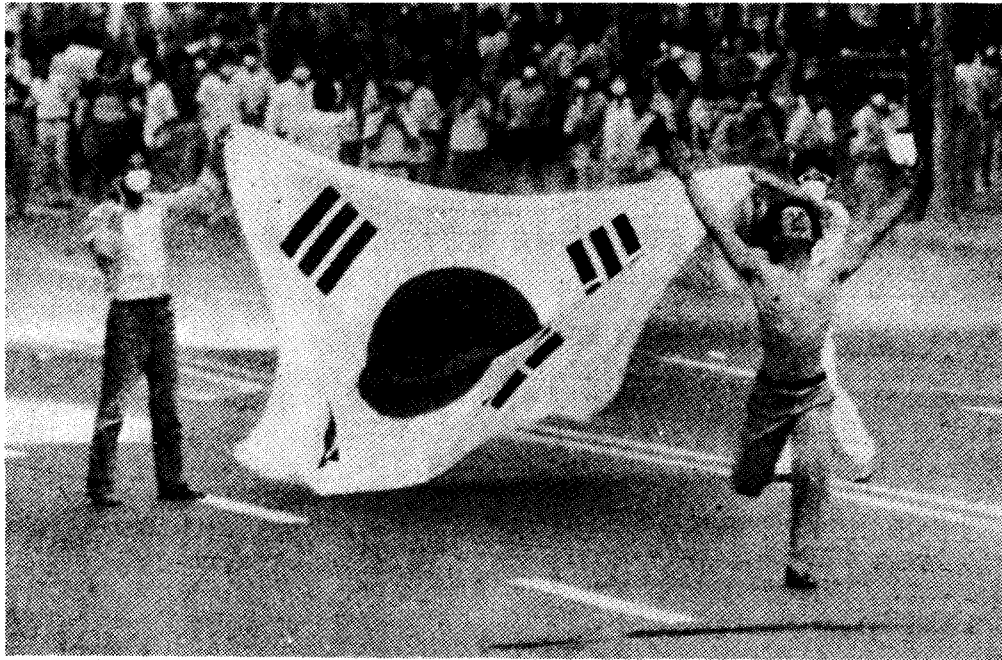
만들었다. 당시 모든 학교와 종교계, 노동자, 농민단체는 6월 10일을 기해 총파업을 단행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경우는 10일 전부터, 즉 6월1일부터 총파업 D-10일이라는 식으로 학내 파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모든 과거 휴가를 했고, 매일 파총회가 열렸다.

6월10일을 총파업의 시점으로 잡은 이유는 당시 민정당 전당대회가 6월 10일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를 마치게 된 전두환은 직선제에 의한 국민투표로는 정권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 그해 4월 13일 소위 4.13 호언 조치를 발표한다.

때문에 거리를 매운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구조는 '호헌철폐'였던 것이다.

격격탄이 날아다니고, 스크럼을 찢던 학우들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들것에 실려 나갔다. 어쩌면 나는 그 모습에 분노했는지도 모른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



10년전과 유사한 현 정치상황 시대에 맞는 운동방향 찾아야

는 정권이야 말로 이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어서 거리로 달려나가 시민들에게 알리고, 직선제를 쟁취하여 우리 손으로 대통령 다운 대통령을 뽑자는 생각 뿐이었다. 그래서 일가 그날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종로와 명동을 열새없이 숨바꼭질을 하듯 외치고, 뛰고, 최후탄에 범벅이 되고... 지나가던 시민들의 따뜻한 격려, 대중 그랬던 것 같다.

기억이 희미한 옛날 이야기를 지금 새삼스러 떠올리는 10년전 그때와 요즘의 상황이 여

러 가지 점에서 비슷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1987년은 72년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이후 15년만에 대통령선거가 치루어지던 해였다. 전두환 정권은 임기를 앞두고 소위 정권누수현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광주와 서울을 통해 얻은 정권이 그 종말을 맞이할 시점이었다.

그리고 1997년 역시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지는 해다. 김영삼 정권은 자신의 아들

이라는 웃지 못할 코미디와 온갖 부정부패에 막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지금과 10년전 6월과는 분명 다르다. 당시에는 군사정권의 억압에서 분노가 폭발되던 시점이었다. 폭발된 국민들의 분노는 곧 시민항쟁을 불러 일으켰고, 그것을 통해 국민들은 직선제를 쟁취했다.

그러나 10년 뒤인 오늘은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하지만, 밖으로 표출되지는 않



▲지난 30일 한총련 출범식에 참여하기 위해 교문을 나서는 학생과 이를 저지하는 전경.

회와 철야농성을 전개했다. 한편 이날 오후 10시30분경 남부지역총학생회연합(남총련) 소속 약 3백여명이 우리학교내로 진입했다.

남총련학생들은 광주 시내 모든 역과 터미널이 봉쇄당하자 전북 신대일 역에서 기차를 세워 농성을 시도한 것이다. 상경 도중 조선대 1백50여명이 연합되었으며, 수원역에서도 전경

고 있다. 한보 사건이나, 김현철 문제등 굵직한 계기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저 침묵할 뿐이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경제 상황이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소위 문민정부라고 주장하는 김영삼 정권의 논리가 국민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이사회에서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그리고 변화된 운동 역량을 들 수 있다.

당시는 총알에 대항한 운동이 필요했다. 자신을 돌보기 보다는 정의를 위해 한몸 희생해도 좋다는 결의와 신념으로 죽음도 불사하는 운동이었다. 아마 그러한 운동방식이 아니었다면, 6월 항쟁은 없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운동이 맞지 않는다. 세상은 변했고, 사람들도 변했다. 변화된 시대에 맞는 운동방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 찾지 못하는 것 같다.

지금 학원을 떠나 생업에 종사하는 필자의 생각으로 학생운동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분명 한 것은 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그 시대에 필요한 운동이 있다는 점이다. 아직 이땅에는 정의가 없다. 정의가 있는 세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정의감이 투철한 학생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연세대 사태나, 최근의 한총련 집회가 정부와 언론에 의해서 매도된다 해도, 끊임없는 고민과 실천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동참하고,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제를 찾아 내야 할 것이다.

그럼에만이 10년전 6월과 다른 오늘날의 6월이 있을 수 있고, 10년전 6월을 계승하는 오늘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김용문 최현일 기자〉

특별기고

신 항 식

〈스포츠조선 기자〉

한의학은 우리 민족이 큰소리 치며 수출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분야다. 지난해 9월 미국의 동양의학 시장을 취재하면서 한의학이 21세기 전략사업이 될 수 있음을 느꼈다.

지금 미국에는 뜻밖에도 한의학 열풍이 불고 있다. 미국 전역에 한의사가 9천명이 있고 40여개의 한의대에 3천5백여명이 재학중이다.

미국 오리건 건강과학대학 낸시 엘더박사의 조사에 의하면 환자의 절반이 동양의학으로 치료받은 경험에 있다. 의학전문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은 '미국인 환자의 3분의 1 정도가 한방을 비롯한 대체의학으로 치료받았다'고 93년에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동양의학 시장은 10~12조원 규모, 동양의학 연구자금으로 연방정부서 지원한 예산도 92년 2백만달러에서 올해는 1천2백만달러로 늘어났다.

미국전역 한의학열풍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의대에 교환교수로 있는 한의대 손학원 교수가 지난해 가을 제자들에게 띄운 편지는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경동시장 한 구석이 한의학의 미래는 분명히 아님니다. 한의계가 잃은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지구촌 곳곳에서 활동하는 한의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에 한국 한의학의 진

경희대 한의대에서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인력 양성이다. 국제학술무대에서 수준 높은 임상 및 기초연구 결과를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론에 맞추어서 발표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관계자들은 직접 선진 외국으로 나갈 것을 촉구한다. 한의학의 치료이론과 원리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취사선택하기 위해 교환교수나 연수, 연구, 유학 등의 형태로 다녀와야 한다는 것이다.

뉴욕 머시대학에서 한의학을 강의하고 있는 한의대 안규석 교수는 "중국 한의계는 임상결과를 객관적으로 자료로 만드는 능력이 미숙하여 미국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한국에서 교수, 대학원생, 그리고 우수한 임상실력자들을 내보내 중국을 알지 못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유학은 '미래의 한의학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야 효과적이다. 기초학 전공 교들이 외국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박사들도 '박사 후 연구과정'으로 내보내야 한다. 또 해외 대학과 학점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 차원에서 유학을 가기는 경제적으로 힘이 든다. 기초의학이 발전해야 응용학문이 발전하는데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기초의학 자원자조차 적은 실정이다. 기초학 교실 조교들은 개업한사의 수입의 3, 4분의 1에 불과한 월급을 받고 있다. 한의대의 경우 20명의 조교중 유급 조교는 9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겨우 등록금이나 받는 정도이고 심지어는 무급 조교도 있다.

한의학 이해정 교수는 "국내에서 공부하는

한의학의 세계화

수를 보여 준다면 경쟁력과 시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중략)

미국인들이 동양의학을 수용하는 것은 서양의학의 한계 때문이라고 한다. 양약의 부작용과 수술 후유증, 그리고 비싼 의료수가로 양방에 식상한 미국인들은 한의학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한의계는 중국이 휩쓸고 있다. 미국에서 동양의학은 곧 '중국의학'으로 통한다. 중국은 2천년대 세계의학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려는 목표를 갖고 전통의학을 집중육성하는 한편 미국등 해외에 꾸준히 진출했다. 반면에 미국에서 한국 한의학의 존재는 찾아보기 어렵다.

뒤늦게나마 지난 4월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학협회는 '미국시장조사단'을 파견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올 연초에는 동국대가 LA의 로얄한의대를 인수하여 세계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또 원광대는 LA와 미국 동부, 유럽에 분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상지대도 LA에 진출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마쳤다.

그렇다면 중국이 선점한 세계 한의학 시장을 우리가 주도하여 좀더 수준높게 이끌 수는 없을까.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한의계의 의지만 있다면 단기간에 따라갈 수 있다. '사상의학'이라고 하는, 중국이 가지지 못한 진보된 의학이 있고 우수한 한의학도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여러대학 가운데서도 경희대는 민족의학의 발전에 충추적인 역할을 했다.

세계화를 하려면 정부와 한의학협회, 한의학연구소에서 각기 해야 할 일이 있다. 특히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외국에 나가 청운의 꿈을 펴는 것은 정말 힘들다"며 "정부와 학교 당국이 기초의학도들의 유학을 지원하여 세계적인 교수요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아넓은 한의대생 필요

한의대에서 세계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인력양성 외에도 수없이 많다. 교과서도 영역해야 하고 미국 면허에 대비해 교과과정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국제학술대회를 소화하려면 학년별로 최소한 한개 강좌 이상 영어로 강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외국인 한의사 임상실습 프로그램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 해외에 분교를 세워 한국 한의학을 직접 수출하는 것도 연구해야 한다. 이왕이면 동양인이 많은 LA보다는 샌프란시스코, 뉴욕, 워싱턴, 시애틀과 같은 백인 주류사회로 진출하는 게 좋다. 아울러 '한의학의 종주국'답게 해외 명문대학과 대등하게 만나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기 바란다.

나는 미국 취재 당시 캘리포니아주 한의학 협회 회장 데이비드 웰즈씨(46)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95년 서울에서 열린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경희대 한방병원의 규모와 시설, 환자수, 약재관리공정 등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경희대에서 미국 한의사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 바랍니다."

한의학의 세계화와 함께 경희대 한의대가 하버드, MIT, MIT공대등과 같은 세계 명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를 기대한다.

현장취재

5기 한총련 출범식

원천봉쇄만이 능사인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6천여명의 학생들은 지난 30일 한양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5기 한총련출범식이 원천봉쇄 당하자 도심에서 밤늦게까지 한양대 진입시위를 벌였다.

대학생들은 을지로3가 지상집결 시위계획이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되자 "평화행사 보장하라, 대선자금 공개하라, 김영삼정권 타도하자"를 외치며 동대문, 을지로3가등의 역내에서 연좌농성을 했다.

1시간동안의 시민선전시위를 마치고 대학로로 진입한 6천여

명의 학생들은 동대문로타라까지 진출하였으나 앞뒤에서 진압작전을 펼치는 경찰에 의해 가두시위가 저지당했다.

본시위대는 거리의 시민들에게 대선자금공개, 출범식 봉쇄 부당성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인물을 나누어 주며 시민선전전을 벌였고 시민들은 박수와 격려로 학생들을 위로하였다.

대치상황의 정적을 깨는 경찰의 페퍼포그나사를 시작으로 경찰측의 도끼물리식 진압작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생시위대는 2시간만에 결친 시위를 마무리 지으며 퇴각할 수 밖에

없었다.

체포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위 해산과정으로 쓰러지고 체포되는 학생들이 많았으나 이를 부추키고 말리는 시민들의 도움으로 부상자와 체포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고대로 진입하여 대열을 정비한 북부총련·동충련·서남총련·서부총련 학생들은 거리로 재진입, 동대문으로 나아가며 40분동안의 시민선전시위를 다시 벌인 후 지역, 지구별로 해산하여 서울시내 여러대학에 마련된 숙소에서 출범식 사수와 김영삼타도도를 위한 결의대

이 난입하는등의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문리대에선 밤을 지새우던 31일 아침부터 시민에게 한총련 상황을 설명하기위해 유인물을 만들었으며, 소수의 학생들은 정문에서 전경들과 수차례에 걸친 대치상황으로 교문주위가 뿌연 연기로 가득차기도 하였다.

제4회 SK 열린 논문 대상

<글로벌리제이션 논문 대상>이 <SK 열린 논문 대상>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선경그룹이 조선일보사와 함께 글로벌리제이션 시대를 이끌어 갈 대학(원)생들에게 학문적 자극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했던 <글로벌리제이션 논문 대상>이 <SK 열린 논문 대상>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화두는 21세기에 여전히 유효하겠지만 그동안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그 논의가 정리되었다는 판단과, 이제는 다가올 미래를 위해 더 폭넓고 다양한 학문적 사유와 창의를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바램에서 새로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바뀐 이름이 시사하듯 <SK 열린 논문 대상>은 내용면에서는 창의력과 다양성에 초점을 둘 것이며, 형식면에서는 기존의 논문 형식을 포함하면서 그보다 더 자유로운 구성방식과 글쓰기 방식을 권장합니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 관념이나 학문적 인습에 대하여 반성하고 열린 사고와 사유를 통해 21세기를 창조하려는 적극적 자세의 표현입니다. <SK 열린 논문 대상>은 대학(원)생 여러분의 진정한 탐구자세를 기다립니다.

1. 논문 주제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성과 창조성
-21세기에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모색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방안
-기업경영력 제고 차원에서 인프라이에 대한 투자 전략
생물조직(인간복제 등)과 생명기지의 문제
-Complex System(카오스이론, 피지, 뇌과학 등)이 갖는 과학적, 철학적, 사회적 의미
-정보화사회가 갖는 의미(전공분야에 맞춰 기술할 것)

2. 참가 대상

국내외 재학중인 한국인 대학(원)생

3. 논문 길이

2백자 원고지 80장 (A4용지 15~20장) 내로 용모서 A4용지용 타자기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A4용지 2장 내외의 요약서 및 사진 3부와 함께 제출

4. 용모 마감

1997년 9월 25일(목) - 우편 접수 마감일 이전의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5. 입상자 발표

1997년 10월 22일(목) 개별 통보

6. 시상내역

등 위	인 원	정학금	부 상
대상	1	1,000만원	
금상	1	각 500만원	제1연구
은상	2	각 200만원	
동상	3	각 100만원	
장려상	5	각 50만원	

7. 논문제출 및 문의

(우)100-787 서울 중구 장교동 1번지 한화빌딩 6층 선경그룹 홍보실

SK 열린 논문대상 담당자 앞 (☎ 729-4832,49)

8. 기 록

-공모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국내외의 저서나 논문을 인용,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힘
-입상 논문의 저작권은 선경그룹이 가지며, 공모 논문은 반환하지 않음
-논문제출시 공모의 주소, 전화번호, 학교, 학과, 학년 등을 밝히기 것

SUNKYONG
선경그룹
http://www.sk.co.kr/